

들어가기 사도행전은 3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7장은 교회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하여, 8~12장은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 이방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수단에 대하여, 13~28장은 복음전파의 확증적 열매를 보여줍니다.

둘러보기 복음은 어둠과 슬픔을 물리치고 큰 기쁨을 주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8:1) 이는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도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주도하고 계획했다는 뜻입니다.(7:57,58) 스테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되고 있는 교회에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흠으셨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던 현장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셔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흠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흠어진 사람들은 리더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었습니다.(8:2) 흠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8:4) 그 중에 빌립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낸 인물로 등장합니다.(8:5~7) 평신도들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영웅화된 허구를 드러냈습니다. 성령님이 성경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빌립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 속의 조건과 근거가 없을지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흠어진 사람들이 다닌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흠어진 사람들이 떠밀려 옮겨 다니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들을 흠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Q. 스테반의 죽음을 주도하고 교회의 큰 박해와 잔멸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7:57~58, 8:1~3) 그 사울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Q. 예루살렘 핍박 때 흠어진 사람들은 누구이며, 대표적으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행8:1~6)

두 번째 주제는 “큰 울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지내며 크게 울었습니다.(8:2) 이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스테반이 고소당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죄였습니다. 이 죄로 사형 당하여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장례 지내거나 우는 사람도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울었던 것은 매

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전하다가 숨겨간 복음의 내용을 자신들이 전하겠다고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Q,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 크게 울었던 사람은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행8:2)

마지막으로 큰 핍박과 큰 울음의 결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8:8) 흠어진 무리들이 도착한 땅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8:2) 이스라엘이 앓수르의 침공으로 함락 된 후, 앓수르는 민족 동화정책으로 앓수르 민족과 유대 민족의 혼인을 장려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때 앓수르의 정책에 따라 피를 섞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였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한숨이 배어 있는 아픔의 땅이며 억눌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흠어진 사람들에게 의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하였습니다. 역사의 저주를 끊어낸 큰 기쁨이 이 마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Q, 흠어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행8:4~5) 억눌리고 아픈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행8:6~7) 그리고, 결국 큰 핍박과 큰 울음 뒤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행8:8)

나오기 삼일교회 성도가 흠어져 가는 삶의 현장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해야 합니다. 선교적 제자로서, 어둠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이 주는 기쁨이 모든 절망과 분노를 몰아내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사람의 경험과 학력, 나이, 지식 등을 압도하며 영적인 승리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 절망과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 혹은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이 일상에서 은혜롭게 역사할 수 있을지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캠퍼스와 직장인 전도는 어떻게 참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봅시다.)

기도 : 主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담임목사님의 강단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진별 팀별 캠퍼스 전도와 예람제의 부흥을 위해

선교적 제자로서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승리하도록

신혼장년부 제자훈련, 목장모임, 대청부모임, 교회학교를 위해

job아카데미, SBC, 세계관과 결혼예비 학교와 암송모임, 언어 학교 등을 위해

400개척, 수도권 선교와 매월 군선교, 의료선교, 논산훈련소 선교 등을 위해